

(붙임 2)

○ 회의사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향 설명(구청장)



단 체 사 진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1분과)



분과별 회의(2분과)



분과별 회의(3분과)



분과별 회의(4분과)



울산광역시매일

2020년 07월 30일 목요일 002면 종합

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분과별 사업제안, 건의사항수렴

울산 북구는 지난 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분과별 사업제안, 건의사항을 수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민위원회에서는 중기재정계획 설명과 함께 하반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도 이뤄졌다. 이어 일반행

정분과, 문화·체육·복지분과, 환경·산업경제분과, 지역개발분과 등 4개 분과별 신규사업 제안과 토론 활동이 진행됐다.

북구 관계자는 “분과별 다양한 사업제안과 건의사항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보다 다양하게 듣고 수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북구는 지난 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분과별 사업제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사진 = 북구청 제공)

울산매일

2020년 07월 30일 목요일 002면 종합



북구는 지난 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분과별 사업제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북구,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 담는다

**■ 제1회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등 50여건 접수
10월 위원회에서 2억 범위 내 최종 선정**

울산 북구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제1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지난 28일 오후 7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북구 주민과 이

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북구청 내 26개 부서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분과, 문화·체육·복지분과, 환경·산업경제분과, 지역개발분과 4개 분과별로 나눠 담당 분과 업무에 맞는 신규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주제로 참석자 간 토론도 진행됐다.

또 1년 임기의 후반기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도 나서 위원장에는 정순암 울산 북구 염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강인호 현대자동차보훈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일상 속에

서 하지만 북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작성해 50여건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현파에 대비하기 위해 버스승강장에 에어커튼과 은열의자 추가 설치 시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공용와이파이 기기 설치 스텝촌교 동천강변 실외 체육시설 설치 스크린19 예방을 위해 공용화장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표시 등이다.

이날 제안된 사업들은 오는 10월 예정된 제2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 2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북구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송재현 기자 wow8147@usnm.co.kr